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상해사회과학원과 국제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

- 환 황·해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충남의 동북아교류활성화 기대돼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金容雄))은 중국상해사회과학원(원장 왕영화(王榮華))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연구를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9월 14일 선문대학교에서 “국제 학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지역 지역정부간 상생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공공학회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겸해 성사되었는데, 향후 충남의 동북아 지역 국제교류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두 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장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두 지역의 연구원간 공동협력은 앞으로 국제적 공공행정협력이란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공동 연구수행 및 국제세미나 개최 ▲각종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 상호 제공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Network 구축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

앞으로 두 연구기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협력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국상해사회과학원은 국제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해(인구 1,700만명)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 협력, 지역개발, 지역경제, 법, 철학, 역사, 관광 등 인문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700여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중 하나이다. 또한 충남의 해외통상교류를 위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상하이기도 하다.

## 충남도, 공공디자인 본격 도입

- 디자인의 가치 확산과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고유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9월 7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명품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공디자인 도입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서 충남의 공공디자인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 그리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 그리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신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적 영역 디자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며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문화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척도로 공공시설이란 잣대가 중요시 되고, 그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자체에서 지역산업혁신과 新산업 창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마련 등 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수립했지만, 디자인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부재 등 효율적인 투자와 통합성이 결여되어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충남에서도 도민의 삶을 질

을 향상시키고 독창적 정체성 확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부정책 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충남의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신생도시에 획기적인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을 지닌 창조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디자인 사각지대부터 철저히 살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병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팀장은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 도쿄의 ‘룻본기 힐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서울 ‘청계천’ 등 디자인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공공디자인 전문 교육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의 일관된 디자인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일반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자인 적용에 관한 총괄 기획 및 협의,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 조직을 구성함과 동시에 지자체 내·외부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디자인실무 협의기구 및 디자인 심의·자문 위원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공공디자인은 책자의 표지에서부터 간판, 거리, 도시개발 등의 행정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매우 가치 있는 공공재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행정의 한 분야로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와 활용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 한데 뭉쳤다

-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등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 -
- 충남 도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 -



충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이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정의 선도 기능을 수행할 공동발전연구단을 구성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는 개별 연구기관간의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을 뛰어 넘어 충청남도 산하 연구기관의 특화된 장점을 모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8월 28일 오전 11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산하 연구기관 학술·연구 교류 협약식”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충남도 혁신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연구기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도정에 개별 연구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 특성을 살린 공동연구는 충남도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이외에도 ▲공동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도 및 시군 현안에 대한 공동T/F팀 구성 ▲연구 인력의 상호 지원 ▲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이 담겨 있다.



이들 6개 연구기관은 앞으로 실무진 구성을 거쳐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은 “도정의 혁신적 정책개발을 위한 도 산하 ‘싱크 탱크’(Think Tank)간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협약 체결 이후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모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의 상생협력과 갈등해결 위해 손잡아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사회갈등연구소' 간 MOU 체결 및 워크샵 개최 -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창립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권경득, 이하 “포럼”)이 8월 20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가진 제2차 워크샵에서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와 MOU를 체결, 갈등 관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호 지식·정보 공유와 교류협력 및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연구 인력·시설·정보 등 자원의 공동 활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포럼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정보 공유 ▲다양한 교육활동 및 워크숍 상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충청지회 공동 주관으로 행자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충남 시·군 갈등관리 담당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MOU 체결과 함께 ‘상생협력·갈등관리와 사회자본의 육성’이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진 박사(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척도로서 사회적 자본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



역의 사회적이익을 극복하고 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며, 지방정부가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

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옥 교수(배재대학교)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사회자본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자본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평등 지향적인 복지 정책 ▲주민의 사회 및 정치 참여 장려 ▲도시계획 및 공동체 디자인에 주민 간 접촉을 증대 ▲마지막으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개인적인 좁은 의미보다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상호주의 규범 육성, 전통적 농촌과 신성장 도시 등의 특성에 맞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병희 공주대 교수는 “사회자본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형성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동체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도 있으며, 이는 대체로 지연, 혈연, 학연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이용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포럼인 만큼 충남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발전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중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Fun경영 실천나서

- 생일자 축하연, 동호회 지원 등 시행 -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의 Fun경영이 시작되었다. 이는 연구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웃음이 묻어나는 연구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재미있는 조직이 일도 잘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모여 선물 증정과 다과회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등 연구원간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동호회를 결성하여 연구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가능해 누구나 부담없이 활동할 수도 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모여 선물 증정과 다과회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등 연구원간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동호회를 결성하여 연구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가능해 누구나 부담없이 활동할 수도 있다.

충발연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동호회 선발대회, 연구원 체육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Fun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또 하나의 가족! 충발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브라운 백 미팅 개최

- 해외선진사례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 줘 -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7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원간의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개최기로 했다.

먼저 여섯 차례에 걸쳐 2007년 상반기 해외연수에서 얻은 분야별 선진사례연구 발표와 함께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과제 연구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브라운 백 미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충발연 관계자는 "브라운 백 미팅은 그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한 '10분 발언' 시간을 통해 다져진 연구하는 조직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란? 점심식사를 곁들인 편하고 부담 없는 토론모임을 지칭하는 말로 보통 점심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의 봉투가 갈색 봉투(Brown Bag)인 데서 유래됐다.